제68차 ETSI 총회

이근구 TTA 표준화본부 본부장
전지윤 TTA 표준기획부 표준전략팀 선임연구원

1. 머리말

ETSI는 1998년 '기술표준과 규제 분야의 정보 제공 절차 지침(Directive)'[1]에 따라 CEN(유럽표준화위원회)과 CENELEC(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와 함께 EU(유럽연합) 및 EFTA(유럽자유무역연합)[2]에서 공인한 유럽표준화기구(ESO)이며, 프랑스 법령에 따르는 비영리단체이다. ETSI는 유선, 무선, 전파, 융합, 방송, 인터넷 기술을 포함한 ICT 전 분야를 포괄하고, 회원사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표준 개발과 유럽시장 단일화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표준을 개발하며, 특히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및 3GPP로 대표되는 무선 분야 표준화에서 경쟁역량을 보유하여 왔다. ETSI는 EU/EFTA의 정책 지원을 위한 유럽 표준 개발뿐만 아니라, 3GPP, GSC(세계표준협력회의) 및 ITU, IEC, ISO 등과 같은 국제표준화기구와의 협력 등 유럽에 국한하지 않는 국제적 활동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68개국 약 804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ETSI 총회는 매년 봄과 가을 연 2회 프랑스 소피아앙티폴리스 ETSI 사옥에서 개최되며, 이번 제68차 총회는 11월 29일에서 30일까지 179명의 회원사가 참가하여 전략계획과 중기전략 현황보고 및 중소기업 지원과 오픈소스 위원회 설립에 관하여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2. 주요 회의 내용

이번 회의에서는 총회 의장과 IPR 의장을 선출하였고, 지난 2015~2016년 총회에서 제안, 승인된 'ETSI 2016년~2020년 장기전략'에 대한 보고와 함께 2016년 전략에 따른 성과와 2017년 전략에 대해 보고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설립과 오픈소스 관련 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건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및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주요 논의

1)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Directive(98/34/EC), 'A Procedure fo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in the Field of Technical Standards and Regulations', 1998.6.22.
2)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유럽 국가 중 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

결과는 다음과 같다.

2.1 ETSI 전략에 따른 2016년 성과

2.1.1 스마트 보안 플랫폼

스마트 보안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의 중심 분야로, 스마트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핵심 산업과 시장 요구사항을 반영한 목표를 세우기 위한 작업반을 설립하는 것이다. 2016년도에 공동백서에 EMVCo와 MoU 체결이 목표였으나 작업반 설립에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2.1.2 사물 인터넷

ETSI에서는 사물인터넷과 관련하여 글로벌 산업과 세계 표준화 및 EU 정책 및 우선순위의 목표 분석을 포함한 신규 작업에 대한 전략적 계획을 보고하였다. 또한, IoT와 M2M 과제 아이템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수행한 상세 분석을 보고하였다. 2016년도에 ETSI가 IoT혁신연합(AIOTI) WG3 의장으로서 사물인터넷 표준화 커뮤니티에서 발간물을 개발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이사회에서는 다른 ETSI 그룹(이사회, 사무국, 기술조직 등)에서 스마트 시티와 관련한 활동을 검토하였다.

2.1.3 5G 이동통신 시스템

2016년도에는 기술조직들 산업규격그룹(ISG)이 5G 관련 활동을 검토하였고 3GPP에서 5G 표준화에 대한 작업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특히, 4G/5G 무선 통합과 6GHz 스펙트럼 대역을 포함한 IMT2020의 무선 접근 기술에 대한 표준개발 성과를 보였다. ETSI는 5G 활동을 ①요구사항 및 보고서(requirements and reports) ②해결책 및 가능한 기술(solutions and enablers) ③시험, 인증 및 적합성(testing, certification and compliance-related activities)의 3단계로 분리하여 활동 계획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1.4 오픈소스

이사회에서는 오픈소스 관련 협력 모델을 확정하기 위하여 전통적 텔레콤 표준화와 오픈소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ETSI 회원, 기술조직은 'ETSI 참조 구현 개발'의 초기 시나리오 이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ETSI 지침에 따라 프로젝트 정의와 관련한 단계를 제공하는 '체크박스' 접근법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법적 및 지식재산권(IPR) 분석에 대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제기되어 '체크박스' 접근법과 ETSI 내부의 신규 오픈소스 프로젝트 권고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2.2 ETSI 2016년~2020년 장기전략

'ETSI 2016년~2020년 장기전략' 추진은 제67차 총회에서 86명 이상의 회원들이 자문과 합의 프로세스를 거쳐 승인되었다. 해당 전략은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주요 분야를 선정하여 사회 경제적, 정치적 및 기술적 동향에 따른 ICT 표준 특성과 개발된 수요가 반영된 신규 영역분야를 선정하였다. 주요 전략으로 '디지털 중심에 서기(Being at the Heart of Digital), 표준 원동력 되기(Being an Enabler of Standards), 세계화(Being Global), 다양한 응용이 가능함(Being Versatile), 포괄적(Being Inclusive)'을 선정하고, 2017년 주요 활동 분야로 사물인터넷, 5G 이동통신 시스템(5GCOM), 유럽연합과 외부 표준화 배경에서의 ETSI(ESSREV), 신규 혁신작업을 위한 Horizon 2020과 ETSI의 매력(H2020), 오픈소스(OSS)의 5개 영역을 선정하였다.

2.3 오픈소스 특별위원회 설립

지난 총회에서 오픈소스와 관련하여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총회에는 오

픈소스 특별위원회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오픈소스는 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많은 회원에게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포괄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오픈소스와 해당 법적 문제에 대하여 회원 내 관련 전문가들이 더 집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 오픈소스와 관련하여 ETSI OSS 이사회 그룹에서 이미 논의가 진행 중이고, 오픈소스와 관련한 다양한 잠재적 시나리오와 프레임워크 개발이 이미 진행 중으로 현재 시점에서 특별위원회 설립 논의는 이사회 절차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번 위원회 설립 기고가 총회 시작 11일 전에 제안되었기 때문에 의장단과 위원회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되어 본 논의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마무리되었다.

2.4 중소기업 지원

ETSI 회원국 중 중소기업은 많은 수를 차지하나, 중소기업 대다수는 인력도 부족하고 짧은 시간동안 회원국으로 머물다 탈퇴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책 및 전략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ETSI 사무국에서는 연 2회 정도 포털사이트, 메일링 리스트, 회의장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회원국 내에서 특별히 중소기업만 ETSI 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치 않으며 또다른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으로 해당 방안을 승인되지는 않았으나, 중소기업 간 메일링 리스트를 만들어 비공식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는 정도로 지원하기로 합의되었다.

3. 맺음말

ETSI는 올해 2017년에도 그 활동 영역을 더욱 넓혀가고 있고, 특히 이슈되는 오픈소스 분야를 계속 추진 전략 분야로 채택하여 특별위원회까지 조직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ICT 분야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TTA는 지속적으로 ETSI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제 표준화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ICT 표준화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차기 회의는 2017년 4월과 11월 각각 제69회, 제70회 총회가 프랑스 소피아앙티폴리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TTA

정보통신 용어 해설 http://terms.tta.or.kr

스마트 도시 smart city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 Cyber Physical Systems), 빅데이터 솔루션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시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도시.

도로, 항만, 수도, 전기, 학교 등 도시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 데이터를 수집 · 활용하여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스마트 시티는 기존 유-시티(u-city)와 유사하지만, 사물 인터넷(IoT)과 인공 지능(AI) 기술이 결합된 차세대 개념이다.